

밤국수, 밤커스터드, 밤막걸리... 밤꽃에 취하는 마을

밤의 모든 것, 이색 먹거리 나들이에 좋아
무령왕릉, 국립공주박물관 등 백제 투어 인기
인절미축제 땀 올방떡 '떡메치기' 체험도

공주산성시장

공주시 산성동에 위치한 공주산성시장(이하 산성시장)은 1000여 개의 점포가 있는 대형시장이다. 이곳은 매월 끝자리 1일과 6일에 5일장이 함께 열리는 데, 장날이면 지역 주민과 전국에서 모여드는 장동행이들로 북적인다.

산성시장은 크게 5구획으로 나뉘어 있는데 구획은 각각 산성시장1길, 2길 등으로 부른다. 시장 구경이 처음이라 필요한 품목을 찾기 힘들다면, 길목에 있는 상인들에게 묻거나 시장 초입에 있는 시장 안내도를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서울에서 장시간 달려 시장에 도착했으니 먹방 투어부터 떠나볼까. 공주 먹거리 하면 뭘니 뭘니 해도 '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산성시장에는 밤으로 만든 커스터드, 인절미를 변형시켜 만든 쫄깃한 식감의 올방떡, 밤막걸리 등 다양한 특산품이 있다. 이 중 밤막걸리는 공주산 밤에 술잎과 치자 등을 넣고 만든 것이 특징이며, 밤의 고소한 맛과 향

이 그대로 살아 있다. 이와 함께 퍽 먹어 봐야 하는 분식이 있었으니, 바로 초장에 찍어먹는 잡채만두다. 당면과 살코기를 넣어 만든 잡채만두는 한 번 썰면 다음 기름에 튀겨내는데, 바삭한 식감과 비법 초장 맛이 일품이다. 주말에는 잡채만두를 맛보러 오는 관광객들로 붐빈다고 하니 기다리는 수고로움이 싫다면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다.

산성시장에는 고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있다. 1000여 종의 다양한 식품이 있는 식물원과 책을 읽으며 커피 한 잔 즐길 수 있는 북카페가 그곳이다. 미니식물원의 규모가 크진 않지만 열대 식물과 각종 화초 등이 있어 상인과 고객을 위한 힐링공간으로 제격이다. 미니식물원 2층에 마련된 북카페는 시원한 음료와 커피는 물론 2000여 권의 다양한 도서와 키즈놀이방을 갖추고 있다.

시장 근처에는 공주산성시장문화공원이 조성돼 있는데 이곳에서는 지역축제와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공주는 매년 정안밤꽃축제를 개최하고



사진=서산동부시장

있는데 축제 때에는 밤국수와 밤파전, 밤묵 등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이색요리를 맛볼 수 있다.

공주는 역사와 관련된 관광지가 많다. 산성시장 주변으로 무령왕릉, 공산성, 한옥마을, 국립공주박물관 등 풍부한

한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어 가족들과 나들이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공주는 크거나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산성시장에서 무령왕릉까지 1.2km, 이어 공산성과 한옥마을까지 1~2km를 걸어서 구경할 수 있으니 날씨 좋은 날 방문한다면 또



보 투어를 해보는 것도 좋다. 산성시장은 공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승용차로 7분 거리에 있다. 시내버스 이용 시 공주터미널에서 100, 101, 125번을 타고 산성시장 정류장에 하차하면 된다. 또 인절미축제 때에는 풍물길놀이, 퓨전국악

등 공연이 열리며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 '떡메치기'를 볼 수 있다. 시장골목 한가운데 길게 줄지어 놓은 테이블에서 상인과 시민들이 하나 되어 떡을 만드는 진풍경이 연출되는데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정규호 기자

“성실했다면 실패해도 좋아” 예비창업자 모집합니다”

생활혁신형 창업자 1천명
성공불용자 150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생활주변의 아이টে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한 창업을 지원하는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사업' 모집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활혁신형 창업이란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에서 '생활주변의 혁신 아이디어를 적용'해 성공 가능성이 있는 창업분야를 말한다.

음식점 등에 쏠려있는 소상공인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용한 혁신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성공불용자 형태로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성공불용자란 도전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창업실패의 위험을 일부 분담해주는 제도다. 3년 후 성공·실패

를 심사하여 성공 시 상환의무가 부과되고, 성실패 시에는 상환의무를 면제한다.

고의적으로 실패한 경우 전액 상환의무를 부과하고, 주위 환경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폐업한 경우에는 일부 상환의무를 부과한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5000여명에게 성공불용자를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일반분야 500명과 재기분야 500명 등 예비창업자 총 10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한 재기분야는 공단에서 추진하는 재창업패키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재창업패키지 교육수료증 소지자 중 사업자 미등록자이며, 기존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아이템을 가진 재창업자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활혁신형 창업 아이디어는 창업준비도, 창업역량, 사업성 등에 대해 종합



사진=픽사베이

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고, 최종 선정자에 대해서는 전문컨설턴트의 멘토링을 지원하여 사업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창업 이후에도 경영교육·컨설팅·정책자금 등 후속 지원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매출증대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 성장관리에 노력을

가울일 계획이다.

생활혁신형 창업 아이디어 신청·접수는 2020년 2월 5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다. 단,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이다. 전용플랫폼인 '아이디어 토크'에서 간략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코로나19’ 발빠른 은행권 8일간 1360억원 지원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은행권도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 중이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2월 7일부터 18일까지 8영업일 동안 총 136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신규 대출이 333억원(191건), 만기연장 496억원(93건), 원금 상환 유예 252억원(26건), 금리우대 7억원(5건) 등이다.

업종별로는 숙박업종에 511억원, 음식점점 251억원 등 발길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했다. 이어 도매업 106억원, 소매업 19억원, 섬유·화학제조업 71억원, 기계·금속제조업 68억원 등 중국과 거래 중인 중소기업에도 공급했다.

은행들은 자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업체당 최대 3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신규대출을 실시 중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수출입 실적에 있으며 대출 만기 시 무상환 만기연장, 최고 1% 금리우대 등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자금지원 외에도 마스크, 손세정제 보급 등 긴급 방역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다. 은행권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약 46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사업을 실시 중이며 현재까지 마스크 106만장, 손세정제 2만9000개, 체온계 2460개, 구호카드 400개 등을 아동센터와 전 통시장 416곳에 전달했다.

또 졸업식과 입학식 취소 등으로 인한 꽃소비 급감 및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다양한 꽃 소비 촉진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은행의 중국현지법인은 우한 지역의 빠른 수습을 위해 기부금 약 22억원을 후원했다.

차진형 기자 jinhyung@meconomynews.com



이성복의 소주 한 잔



찬 우동 간장소스에 비벼~
정통 사누키우동의 맛 전수받아

야마다야, 분당 구미동

우동 면발에서 부드러움과 쫄깃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면 고수의 작품이다. 분당의 야마다야는 서교동 교다리아와 더불어 사누키우동으로 정평이 났다.

육수는 마치 소금과 가스오부시만 들어간 듯 지극히 담백하다. 시그니처 메뉴로 국물 없이 간장소스를 뿌려 비벼먹는 가마보우동과 소바처럼 차게 비벼먹는 자루보우동을 많이 찾는다. 우동마다 새우, 고구마 튀김, 롤스시 달려나오는 세트 메뉴를 추천한다. 롤스시는 점임오이, 맛살, 봉장어를 싸고 날치알을 덮었다. 덴뿌라 우동의 왕새우는 덴다시에 찍먹~ 자루보우개는 가스오부시 우동소스에 비벼! 저녁엔 닭가슴살 양념살, 덴뿌라 모듬 인주에 나마조쥬 한 잔하면 '딱'이다. 2003년 개업, 화요일 휴장. 일본 카가와현 다카마쓰 지역이 사누키 우동의 발상지이다. 사누키는 가가와와 옛말이고 다카마쓰 지역에서도 붓가게우동의 원조라 할 수 있는 가가가 야마다야(山田家) 본점이다.



“메밀꽃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
이효석 따라맛보는 봉평장 메밀요리

동이네, 봉평

봉평장에 온 장동행이 허생원. 20여년전 물레방앗간에서 성서방집 처녀와 맺었던 인연을 잊지 못하고 있다. 주말 총주집에서 만난 동이라는 젊은이와 동행을 하게 된다. 대화장으로 넘어가는 60리길. 같은 원소집이에 어머니가 봉평 출신이라...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 평창군 봉평장과 대화장은 36세로 요절한 가산(可山) 이효석의 단편 '메밀꽃 필 무렵'(1936년)의 무대다. 봉평장에서 취나물, 메밀가루 등 산골재료를 구경을 하고 효석기념관 부근에 줄지어 선 막국수집으로 향한다. 전병, 무침, 새싹, 묵으로 꾸민 메밀모듬으로 먼저 메밀의 온갖 식감을 느껴보자. 메밀새싹 얹은 비빔막국수 양념은 살짝 덜어내는 게 습습하니 좋겠다. 도중 육수를 부어 물막국수로 메뉴 전환하는 것도 모미다. 봉평장에 9월이 오면 쉼다리 너머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 될 터이다.



군침 나는 제주 근고기의 식감
북촌 골목 영화처럼 멋진 돼지고기집

중경삼림, 안국역 북촌

"세상에 유효 기한이 없는 것은 없는 걸까?" 에피소드1: 실연한 경찰 금성무는 통조림의 유효기간까지 애인을 기다린다. 마약상 임정하는 자신을 배신한 남자를 처리하고 위기에 빠졌다. 실연한 남녀의 자포자기같은 하룻밤.

왕가위 감독 '중경삼림(重慶森林)'의 이름을 딴 돼지고기 식당이다. 점심엔 가성비 뛰어난 사브사브와 매운갈비찜에 줄을 선다. 제주식으로 젓갈 소스 내고 고기를 스테이크처럼 두툼게 구워 육즙과 식감을 최대한 살려준다. 그랜빈, 대파, 양송이, 파리고추를 곁들여 굵고 식사로 김치말이 국수, 된장찌개, 냉면 등 중에 고르면 깔끔한 레스토랑 디너가 된다.

에피소드2: 경찰 양조위는 이별 편지를 맡기고 사라진 애인을 잊지 못했다. 편의점 종업원 왕정문이 중간에서 편지 도둑질을 하며 이남자를 짝사랑한다. 사랑도 도둑질이 된다. 홍콩의 중국 반환 3년을 앞둔 1994년. 불만에 휩싸인 홍콩 젊은이들의 냉소적인 사랑이야기를 담았다.



갈매기 굽고 껌데기 불사르는 밤
왕십리에 돼지고깃집 많고 많지만...

갈매기의 꿈, 왕십리역

갈매기살은 돼지의 횡격막과 간 사이에 있는 간막이살이다. 끼룩끼룩 나는 갈매기가 아니거늘, 가게 이름을 유명 소설에서 풍자적으로 따붙여 기억하기 좋다.

'갈매기의 꿈 (Jonathan Livingston Seagull·1970)'은 리처드 바크의 우화소설로 1973년 제작한 동명의 영화(1982년 한국개봉)와 닐 다이아몬드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도 유명하다. 동료 갈매기들의 조롱과 질시를 이겨내고 하늘 높이 비상을 시도하는 갈매기 조난단의 도전을 그렸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는 명제를 안주로 갈매기살 뜯으며 소주 한 잔 하자. 2만4천원 500g이면 두셋 먹기에 너끈하다. 생갈매기살 소금구이 못지않게 돼지 껌데기 맛이 기가 막힌다. 오늘 현재로 이 집이 '최애'껌집이다. 양념 숙성에 비결이 있을 터. 마무리는 김 뿌린 최루탄주먹밥과 해물탕 '포스'의 용궁라면이다.

뉴데일리경제 대표 palmador@meconomynews.com